

뭐가 그렇게 원통해서 놓지 못하십니까!

19면에서 계속

었습니다. 부부기간에도 하루 종일 나갔다가 아침에 퇴근을 하고, 부부가 다 밥벌이를 하니까.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나갔으면 저녁에 들어와서 같이 오순도순 애들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사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들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러니 내가 보기는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네들은 이력하고도 살고 싶소? 아니, 산다 하고요? 바쁘다는 생각이 안 들고 편안하오?" 하니까 "편안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부기간에 애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것도 살맛 나는 살림인가?" 내가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니 어떡합니까? 내가 아침에 밥벌이를 하러 나오면 남편은 낮에 나가니 일 주일에 두 번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다가도 낮에 같이 일을 나갈 수도 있고 밤에 또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나는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촌놈이 돼서 그런지.

애들도 그냥 한국말을 하는데 반말을 해요. 아예 반말이예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외국말이 반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국말이 반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중 웃음) 그저 모두 반말이예요. 모두 한국말을 하면서도 반말을 해요. 외국 사람이라면 그런 것 말고도 보지만 아, 이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그렇게 반말을 하니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지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본위를 따라서 지조가 있어야지 그렇게 지조가 없어서 쓰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지조가 없느냐고 합디다. 그래서 아니, 늙은이를 봐도 '이랬어 저랬어' 하고 애를 봐도 '이랬어 저랬어' 하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런 지조가 없는 사람이 어딴냐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지조 없는 사람 난 못 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합디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고쳐나가려면 스님이 오래 계셔주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거라. (대중 웃음) 아니, 스님이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을 가르칩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세미나가 열렸습디다. 아, 그런데 미국 사람이 거짓말 보태서요, 100명입니다. 그럼 50명이죠? (대중 웃음)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는 깜짝 놀랐습디다. 세상에 외국 사람이 몇 명도 어려울 텐데 한 50명이 왔다고 합디다. 모두 합해서 그저 한 60명, 70명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통역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영어는 잘하는데 말입니다. 불교 용어를 모르니까 내 말을 받아서 통역해줄 사람이 없습디다. 더군다나 또 쉽게 말을 하는데도 그래요. 글쎄, 어렵게나 뭐 말합니까, 어디? 내가 본래 그렇게 거드름피우는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주 쉽죠. 아, 그랬는데 통역을 해주지 못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옆의 사람한테 나는 그냥 한국 사람만 들게 할 테니 너는 책을 읽고 종이에 써가지고 영어로 해라, 그랬죠. 아, 그럭할 수밖에 없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잠깐 하고 나왔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나는 키가 작고 외국 사람들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또. (대중 웃음) 아,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어깨에도 차지 않는 겁니다. (대중 웃음) 하하하, 한편으로는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마는 그래도 조그마한 고추가 때문, 톱 쏘는 기운이 있으니까 맛 좀 보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나 말라요? 아, 키스를 하려고 덤벼지 않습니까. 하하하, 아, 이 머리가 뻐뻐 깎았으니까 키스

를 못 알아듣고 말입니다.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 허허허,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 머리를 깎고 조그맣고 그러니까 조카들이 놀았구나!' 하하하.

그럭하고 한 가지 또 우스운 게 뭐냐 하면, '헤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미국 닥터 '웨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디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아침에는 6시부터 6시 반까지 좌선을 한다고 그랬습디다. 그러니까 정각 6시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좌선을 하다가 뒤를 돌아다보고 싶어 돌아다보니까 글쎄,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쪽 뺀고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서는 앉았습디다. 그 긴 다리를 쪽 뺀고요. (대중 웃음) 아휴 참, 그 꼴이러니 그거 참 볼 만하더군요.

그렇지만 몸뚱이는 그렇게 뻐뻐다 할지라도 뻐

이러면서, 이러면서 (오른손으로 똥을 싸듯이 보이며), 하하하, 그리고 그 큰 몸에 과일도 아침 여섯 시면 꼭 서너 개씩 따서 들고 옵니다. 꽃도 들고 오고.

내년에는 한국에 나온다고 합디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몇이나, 대어섯 사람 올는지 몰라요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랬지 어떡합니까? 오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나? '한국 구경 했느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통역을 들이대서, 한국 구경 했나? '나는 한국 구경 한번도 못 했다.' 그래요. 이 자리에 나서 이 자리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네들 보다 우리가 낫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여기 왔지 않느냐 이거야. 하하하,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우스워 죽겠다고. 그리고 거기 설산을 구경시

사를 짓고 살았습디다. "그래서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항상 소를 가져가 눈을 갈아줬는데 아, 똥이 아파서 눈을 갈지 못한다고 통지가 왔으니, 너 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장기를 메고 눈을 갈아줬다." 하고 주지 스님이 했습디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제자를 한 명 보냈더니만 아, 제자가 가서 영 소를 가져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래 나중에 빈손으로 왔기에 물었더니 "오다가 하도 배가 고파 동네 사람을 만나고, 네 기둥을 밟고 네 다리를 매가지고선 훌쩍 다 구워 먹었습디다." 하는 게 아닙니까.

구워 먹고서는 절에 어슬렁어슬렁 왔으니까, "그래서요?" 구워 먹고 오니까, 소는 안 가져오고 여태 뭐하고 있냐고 오냐고 그러는 바람에, 올 때 하도 배가 고파서 동네 사람 모아놓고 다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워 먹었느냐?' 그래서 풀 갖다가 모아놓고선 구워 먹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기둥을 밟고 네 발을 매고선 거기다가 나무를 쌓고선 구워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사형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제야 큰일났다'고... 응? 그래, "동네에서 소 구워 먹었다고 소문이 나면 고을에서 그냥 발라 소문이 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냥 막 팔팔팔팔 뛰었습디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뛰니까, 또 사형이 하나 있다 하는 소리가 '아, 좀 이르면 어떤가?'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 그럼 좀 더디면 어떤가?' 그러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스님이라면 뭐라고 말씀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렇게 대답을 못한 그 분이 그냥 아무 소리가, 그냥 고개를 숙여 보이며 아무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여러분 중에서 거기의, 그 도량의 스님이시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소 구워먹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또, 구워먹었다는 놈은 누구고 좀 이르면 어떠냐고 했고, 좀 더디면 어떠냐고 했으니 그건 무슨 까닭이냐 말입니다. 그 무슨 까닭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즉 말하자면 은사 스님으로 거기 계셨더라면 뭐라고 청전을 해주셨을까요? 야단을 쳤을까요? 어떠한 말을 했을까,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게 무슨 연고입니까?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칠까요?

*위 법문은 1987년 1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똑바른 밝은 눈을 갖는다면, 한마음의 청 눈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을 겁니다! 진짜 자유인인 것입니다!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대중 웃음) 머리가 있으면 걱정입니까? 그냥 내려다보고 키스하면 됐지. 하하하, 참, 우스운 일이 많죠? 허허허, 그래서 이 머리는 피하고 미국 여자들하고는 여기 이마에다가 했죠. 할 수 없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속에서 웃음이 나고 한편으로는 참, 종류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키 큰 사람 부럽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네들도 키 작은 거 부럽지 않았을 겁니다. (대중 웃음) 역시 피차에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그리고 나와서 음식점에 갔습디다. 아, 그런데 음식점에 데리고 간 한국 사람더러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은 우리보다 키가 컸습디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음식점 주인이 미국 사람인데 당신 조카들이냐고 그러거든요. (대중 웃음) 아, 이거 또 낭패 아닙니까? 거기는 머리를 깎은 사람이 없습니까. 승려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서 볼 땐 그럴 수밖에요. 아, 조카들이 한국에서 왔느냐고, 코리아에서 왔느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또, 그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스님네들을 모르니까요. 듣고선 우리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우스워 죽겠다고 해요. 우리는 그 소리

은 사이가 없고, 마음이 아리따고 그렇게 알려고 애를 써주는 그 마음씨가 고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고선 심곳이 웃고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참, 좋았습니다. 왜 기쁘냐? 비록 다리가 아파서 구부릴 수가 없어서 뻐였으나 마음으로서는 내가 꼭 저 법을 배워야겠다는 그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를 갖다 주는데 첫잔을 이렇게 보면서 먹고선 (양 손으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보이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뒤를 이렇게 손을 (오른손으로 똥을 누듯이 보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더니, 먹고 싸는 걸 (오른손 주먹으로 입을 짚어 보이신 후, 똥을 누듯이 보이시고)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대중 웃음) 하하하. 그대 먹고 싸는 걸 알았으니 그쯤 알렸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하하, "인간은 먹고 싸는 거다. 하하하. (대중 웃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만물, 일체가 다 먹고 싸는 거다. 그러니 여기다가 많이 두지 말라야. 이렇게 싸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하!" (양 손으로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이러면서 아주 스님네들이 좋다고 이러면서, "하!" (양 손으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보이시며) 이러면서,

켜 주는데, 우리 저 앞산 보여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것도 좋다고요, 아이구, 넓기는 하지만 그것도 좋다고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냥 환희심이 나서 구경시키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이 다음에 한국에 오면 너 설악산 한번 구경해 봐라. 네가 놀러서 자빠질 거다.' 속으로 이라고 했죠. (대중 웃음)

그리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있는데 어느 스님이 초정을 해서 그 절에 가서 설법을 하게 됐습디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스님이시니까는 공안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 주장자가 기다란 게 있습니다. 법상이 이렇게 얇은데, 거기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굳이 큰스님이 거기 올라가셔야 된다고 올라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크지를 알아서 다행이지마는, 적으니까 다행이죠. 책상 같은데 올라가기에는, 하하하. (대중 웃음) 그대 덩그러니 흘랑 올라가서 하하하, 그 기다란, 나보다 더 큰 주장자를 가지고 한 번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보이시며) 내리쳤죠. 하하하. 치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는 도량에서 스님들이 사는데, 예전에는 농

대한불자가수회 창립 제16주년 기념법회 및 제6회 연말결산 노래자랑·축하공연

초대합니다



귀의삼보하옵고, 국화향기 그윽한 절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대내에 불보살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대한불자가수회 회원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찾아 음성포교사로 봉사 해온지 어느덧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신 불자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대한불자가수회 창립 제16주년기념법회 및 제6회 연말결산 노래자랑·축하공연'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1(2007)년 11월 일
대한불자가수회 회장 雲峰 김 홍 국 합창

- 행사안내 -

- ◆ 일 시 : 불기 2551년(2007)년 11월 30일(금) 오후 1시~5시
- ◆ 장 소 :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 ◆ 행사 명 : 제1부-창립제16주년기념대법회(1시)
제2부-제6회 연말결산 노래자랑(2시30분)
제3부-축하공연(3시30분)
- ◆ 주 최 : 대한불자가수회
- ◆ 후 원 : 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교계신문사
-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출구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대한불자가수회 임원 및 회원

- 총 재 : 혜 총 큰스님
- 회 장 : 운 봉 김 홍 국
- 고 문 : 명국환 금사향 남강수 김활선
- 자 문 위 원 : 남 진 현 철 김세례나 문주란 진송남 이태원 이은하 김국환 박일준 이자연
- 특별자문위원 : 여운계 선우용녀 전원주 나문희 고두심 서우림 엄영만 김용숙 송 해 권귀옥 배일집 임희준 이상벽 김병조 오재미 황영조 박지성 김남일 이동국 설기현
- 특별 회 원 : 정수라 이승철 이선희 조항조 엄정화 김민중 소찬휘 옥주현 장윤정 성시경 김중국 윤 상
- 부 회 장 : 현 당 오은정 유지나
- 감 사 : 최석준 남궁옥분
- 기 획 실 장 : 이한규
- 사 무 국 장 : 선선호
- 섭 외 부 장 : 서상익 홍보부장 : 김혜연 조직부장 : 전승희
- 포 교 부 장 : 이현주 봉사부장 : 왕소연 문화부장 : 강달남
- 회 원 : 임부회 나운하 박희진 오현숙 해림이 정해진 박경진 서정현 표동이 정윤희 오나영 박정현 공영진 한미정 김귀식 춘향이 문명하 고시아 김나영 장현주 장미소 우연화 김다현 여 연 이창규 윤사월 이혜란 정도현 허 송 외 불자인기가수 300여명

대한불자가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1층
☎ 02)713-2905~6, FAX 02)713-2906, 011-730-2242(선선호국장), 011-573-0108(이한규 실장)